

驪州 欣岩里 先史聚落址 出土 石器類Ⅱ

—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8) —

崔 夢 龍*
朴 淳 發**

目 次

一、序 言	다. 環狀石斧
二、石器類	라. 石槍
가. 石斧	三、後 言
나. 石劍	

一、序 言

欣岩里 遺蹟은 1972年度부터 1978年度까지 7次에 걸쳐 서울大學校 博物館에 의해 발굴조사되어 16개¹⁾의 無文土器時代의 住居址가 確認된 漢江流域의 重要한 先史遺蹟으로 잘 알려져 왔다. 또 이 주거지들은 半月形石刀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다른 遺物들의 型式에 의해 대개 서기전 7세기 전후경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특히 12號 住居址에서 炭化米가 發見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稻作의 開始를 서기전 7세기 以前으로 올린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³⁾ 이 조그만 글에서 欣岩里 遺蹟에서 그간의 發掘을 통해 얻어진 石斧, 石劍, 環狀石斧 石槍들을 한데 모아 ‘驪州 欣岩里 先史聚落址 出土 石器類Ⅱ’라는 題下에 整理해 봄으로써 이곳 出土石器의 一斷面을

* 서울大 人文大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 湖巖美術館 學藝士

1) 崔夢龍·朴洋震, ‘驪州欣岩里先史聚落址’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5)—

정신문화연구 1984 여름호, pp. 149~169.

2) 前掲文, p. 169.

및 李白圭, “欣岩里出土 遺物에 對하여”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p. 47.

3) 任孝宰, 欣岩里住居址 IV 1978 및 崔夢龍, ‘農耕文化의 起源, 傳播 그리고 問題點’ 季刊京鄉 思想과 政策, 1984. 겨울호 p. 34.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結果를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의 一環으로 삼고자 한다."

二、石器類

欣岩里住居址에서 出土된 石器들은 모두 348點으로 한자리에 모아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表 1〉 〈欣岩里出土 石器 集成表〉

주거지	석기	兩石磨斧類	單石斧類	打石斧類	석촉	석검	환석상부	방추자	숫돌	석창	碾石	敲石	石棒	臺石	石刀	반월도	보습	가석래형기	기타	계
1호주거지		3	1	1	4	3			1							○			2	15
2 "		1	3		1			1			1					○			1	8
3 "				2	3								1						1	7
4 "			1		3			3	1			1	1		1	○				11
5 "		1	1	3	1				2											8
6 "		2		1	2								1							6
7 "		1							1		1	1								4
8 "			1	1	2	1			1		1			1						8
9 "		1	6	3	15				1			1			5	○				27
10 "																				0
11 "			1	1	8				3			3		1				1	1	19
12 "		6	15	6	35	5	1	4	8			1		2	2	○	1		4	94
13 "		1	1	1	5			1	1			1								11
14 "		1	2	4	5				1	1	1	2	1			○			3	21
기타		7	18	3	60	3	5	2	1						9	○			3	108
합계		24	49	26	142	12	6	11	21	1	4	10	4	4	17		2		15	348

* 반월도는 註 4)의 "바"에서 다루었으므로 주거지별 출토 數量은 略하고 다만 出土하는 주거지에는 ○표를 하였음.

4) 여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이 발표되어 있다.

가. 崔夢龍, 林永珍, '堤原郡 陽平里의 先史住居址' 白山學報 28號, 1984. pp. 27~56.

나. Choi Mong-Lyong, 'The Analysis of Plain and Red Painted Polished Korean Pottery Sherds excavated at Yangp'yong, Chewön-gun, Chüng Ch'öng Pukto Province' 東亞文化 21, pp. 153~172.

다. 崔夢龍·李熙濬·朴洋震, '堤原郡 陽平里·桃花里 遺蹟發掘報告' 忠北大, 1982. pp. 315~328.

라. 崔夢龍·尹東錫·李泳南, '堤原郡 陽平里·桃花里出土 紅陶, 鐵器의 科學的 分析'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pp. 143~167.

마. 崔夢龍·朴洋震, '驪州欣岩里先史 聚落址出土 土器分析' 古文化 25輯 1985. pp. 3~8.

바. 崔夢龍·李泳南·朴淳發·朴洋震, '驪州欣岩里 先史聚落址出土 石器類 I' 邊太燮教授回甲紀念論叢 1985 (未刊)

가. 石 斧

우리나라의 櫛文土器와 無文土器時代를 통하여 알려져 있는 石斧類에 해당하는 石器에는 打製石斧, 磨製石斧등 그 제작기법에 따라 양분되고 또 磨製의 경우는 兩面날을 가진 보통 磨製石斧와, 이 보다는 소형이고 외날을 가진 單刃石斧로 구분된다. 또한 單刃의 경우 有溝石斧, 石鑿, 대팻날 등으로 세분된다. 여기서는 有溝石斧를 제외한 單刃石斧類와 兩刃石斧類, 그리고 打製石斧를 그 대상으로 하되, 주로 磨製의 兩刃과 單刃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 環狀石斧는 別途의 항목을 두어 다루고자 한다.

欣岩里에서 出土한 石斧類는 그간 7次에 걸친 發掘과 表土採集 결과 모두 99點에 달한다.

이는 石鏃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石斧의 구성을 보면 兩刃磨製가 24點, 單刃磨製 49點, 그리고 打製石斧類가 26點이다. 이들을 각 型式別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1) 兩刃磨製石斧類

欣岩里出土의 兩刃石斧類(筆者들 임의로 I類라고 부름)의 出土表는 다음과 같다(表 2). 여기의

〈表 2〉 欣岩里 出土 I類石斧

일련번호	總身長(cm)	幅(cm)	厚(cm)	身 部 가 공 상 태	型 式	出土住居址
1	9.5	4.2	1.6	일부磨研. 打整痕있음	IA	12호
2	10.1	5.4	2.6	打整. 刃部未完品	IA	5호
3	10.6	6.9	3.2	粗啄(pecking)	IA	12호
4	11.6	5.0	2.8	打整. 粗啄	IA	지표
5	12.3	4.6	2.4	磨 研	IA	12호
6	12.5	6	3.3	打 整	IA-B	7호
7	12.5	4	1.2	凹部가 있음. 粗磨	IA	1호
8	12.6	7.2	3.5	粗 啄	IA	12호
9	12.7	5.3	2.9	粗啄. 磨研	IA-B	9호
10	13.2	4.8	2.3	打整. 粗啄	IA	6호
11	14.0	6.2	3.3	磨 研	IA-B	1호
12	14.8	5.4	3.6	磨研(打整痕있음)	IB	未詳
13	15.1	5.9	4.2	打整(精打)	IB	13호
14	16.0	6.7	4.1	粗啄. 일부 磨研	IB	6호
15	16.0	6.2	4.4	磨研(側面打整痕)	IB	未詳
16	16.9	5	2.3	磨 研	IA	12호
17	17.6	6.3	4	粗啄. 착병흔. 일부磨研	IB	12호
18	5.7(파손)	6.3	2.7	打 整	IA	14호
19	6.8(파손)	5.9	4.2	打整후 粗啄	IB	未詳
20	6.1(파손)	5.4	2.3	打整痕 있음. 磨研	IA	地表
21	9 (파손)	파손	1.8	磨 研	IA-B	1호
22	6.8(파손)	6.9	2.7	磨 研	IA	2호
23	4.4(파손)	파손	1.4	打整痕있음. 磨研	IA	地表
24	13.2(파손)	5.9	2.8	打整. 일부 磨研	IA-B	地表

(IA-B는 IA과 IA의 중간형태로 단면형태가 일정치 않은 것을 나타냄.)

서는 石斧의 各型式과 크기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總長, 身部の 幅과 두께를 計測하였다.

總身長의 分布를 보면 대체로 세개의 集團으로 나뉘어 짐을 볼 수 있다.(表 3) 總身長이 9cm 이상 12cm 미만의 것, 12cm 이상 15cm 미만의 것, 그리고 15cm 이상으로 나뉘어 진다.

한편, 石斧의 형식과의 관계를 보면 9cm~12cm 미만의 소형의 것에는 모두 身部斷面이 납작한(橫斷面의 세로/가로 수치가 1/2 미만인 것을 말함. 이를 IA型이라 칭함) 것이었으며, 15cm 이상의 것 중에는 1點을 제외하고는 원통형(橫斷面의 세로/가로 수치가 1/2 이상인 것으로, 이를 IB型이라 칭함)이고, 12~15cm 사이의 것은 단면 형태가 A와 B의 중간형 및 부정형(이를 IA-B라 칭함)으로 나타나고 있어 總身長과의 함수관계를 보여준다. 總身長分布圖 作成時 파손품은 제외하였다.

다음 身部の 가공상태를 보면, 전면을 완전 마연한 경우는 소수이고, 身部に 打整할때의 흔적이 그대로 남도록 마연한 경우가 많으며 打擊을 加해 粗整만 한채로 두고 刃部만을 마연한 것도 있다.

혼암리 출토 磨製兩刃 석부는 대체로 정교한 것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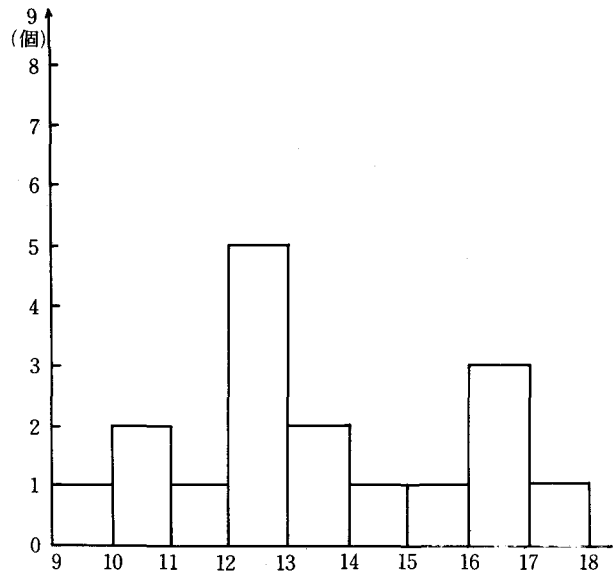
점은 한강유역의 무문토기 前期의 유적에서 공통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 즐문토기이래 이 지역의 礫石斧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單刃磨製石斧類

欣岩里에서 出土된 單刃磨製石斧(筆者들 임의로 II類라고 부름)는 모두 49點에 이른다. 이들은 橫斷面의 形態에 따라 대체로 편평납작한 것(IIA라고 부름)과 둥그스럼한 것(II B라 부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IIA式의 경우는 다시 전체 모양에 따라 細長形(IIA₁이라 부름)과 非細長形(IIA₂라 부름)으로 細分된다.(細長과 非細長의 分類기준은 刃部를 아래로 두고 바로 놓았을 때의 가로길이/세로길이 1/2보다 작은 것은 細長形으로, 1/2보다 큰 것은 非細長形으로 하였음)

이중 IIA₁(납작細長形)이 17點, IIA₂(납작非細長形)이 19點인데 비해, II B式(둥근단면形)에 해당하는 것은 3點밖에 없다. 한편, 이 3點中 1點은 有溝石斧와 같은 刃部形態를 보이고 있으나, 刃部만 조금 남긴채 身部가 缺損되어 불확실하다. 이처럼 아직까지 有溝石斧가 出土된 바

〈表 3〉 I類石斧의 總身長 分布圖



가 없는 것은 매우 特異하다.

다음의 〈表 4〉는 欣岩里 出土 單刃磨製石斧의 總身長, 幅, 두께의 計測치를 나타낸 것이다. 總身長의 경우, IIA,式은 7cm~13cm 사이에 모두가 들어가며 그중 8cm~10 사이가 9點으로

〈表 4〉 欣岩里出土 II類石斧 集成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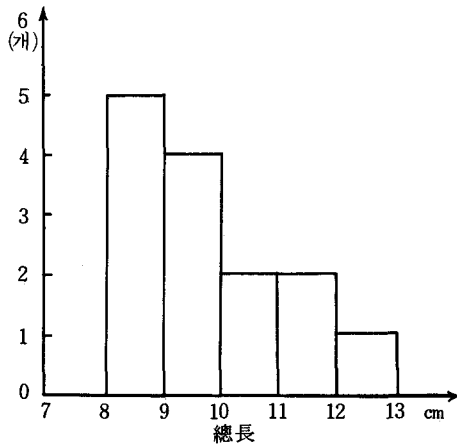
일련번호	總身長(cm)	幅(cm)	厚(cm)	型式	身部加工상태	출토주거지
1	11.8	4.0	0.9	IIA,	일부 自然石面(cortex) 打整	1호
2	9.6	3.7	1.6	"	打整. 일부마연	2호
3	8.9	3.7	1.4	"	磨研. 打整痕 있음	"
4	8.6	3.8	1.5	"	" . 打整痕 있음	4호
5	8.9	4.0	1.0	"	剝片. 打整. 未成品	5호
6	8.3	4.0	1.5	"	磨研. 打整痕 있음	9호
7	7.4	3.6	0.9	"	" "	"
8	9.5	4.8	0.8	"	" "	12호
9	9.5	4.0	0.6	"	打整. 側面 양쪽마연	"
10	12.5	5.1	0.9	"	打整. 刃部만 마연	"
11	11.0	5.1	2.2	"	磨研. 打整痕 있음	"
12	10.6	4.7	1.8	"	打 整	"
13	8.5	4.0	1.1	"	剝片. 약간의 打整. 刃部만 마연	13호
14	11.6	4.2	1.3	"	自然石面 打整	地表
15	7.9	3.0	1.1	"	側面磨研	"
16	7.8	3.7	1.2	"	打整. 일부마연	"
17	9.5	4.4	0.7	"	側面마연. 打整 흔적남음	16호(78년발굴)
18	3.8	3.2	0.9	IIA,	비교적 精磨	3호
19	6.2	3.1	0.7	"	일부 自然石面 打整	"
20	6.2	4.4	1.0	"	剝片 그대로 이용. 磨研 전혀 없음	8호
21	6.0	3.4	0.7	"	刃部만 마연. 打整	9호
22	7.5	4.0	1.1	"	1面은 自然石面 打整	"
23	4.7	4.3	0.8	"	打整. 일부 마연	12호
24	5.4	2.9	0.9	"	소형자갈 이용. 刃部만 打整	"
25	5.7	4.1	1.0	"	주위 打整흔적. 刃部 마연	"
26	4.5	3.5	0.6	"	打整. 刃部 마연	"
27	6.5	4.4	0.5	"	打整. 刃部 마연	"
28	7.2	4.7	0.9	"	打整.	"
29	7.7	4.8	0.6	"	剝片. 自然刃이용	14호
30	1.5(破)	6.6	1.0	"	刃部만 殘存	"
31	8.1	4.1	0.8	"	打整. 일부 마연	지표
32	8.5	4.4	1.3	"	" "	"
33	6.6	3.3	1.2	"	" "	"
34	5.9	4.2	1.3	"	" "	"
35	4.4	3.0	1.0	"	" "	"
36	4.9	2.9	0.5	"	마연(일부 파손)	"
37	5.7	3.1	0.9	"	마연. 打整痕 있음.	未詳

38	4.2	1.2	0.8	IIB	단면梯形. 마연. 일부 粗啄	9호
39	9.8	2.0	1.4	"	단면 三角形. 일부마연. 자연석 이용	12호
40	5.7(破)	5.3	3.9	"	단면 원통. 전면 精磨. 유구석부(?)	"
41	4.2	파손	0.6	불명	측면까지 잘 마연	2호
42	3.7(破)	4	0.7	"	측면 마연(타흔 일부 남아있음.)	12호
43	4.3(破)	파손	0.8	"	미완성품	지표
44	4.0	1.9	0.4	"	마연(타정 흔 있음)	9호
45	3.1(破)	2.2	0.5	"	측면 1면 마연	12호
46	6.5(破)	6.0	1.1	"	"	지표
47	3.6(破)	2.8(破)	0.9	"	마연(타정흔 있음)	"
48	3.9(破)	3.5	0.8	"	마연(")	"
49	3.8(破)	파손	0.8	"	마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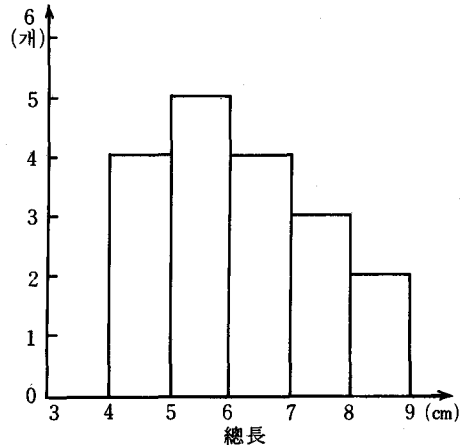
서 받을 차지하고 있다(表 5). IIA_2 의 경우는 IIA_1 보다 작아서 3cm~9cm 사이이며 4cm~7cm 사이에 있는 것이 13點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表 6).

따라서 대체로 IIA_1 의 전체 신장이 IIA_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表 5〉 IIA_1 式 總身長 分布圖



〈表 6〉 IIA_2 式 總身長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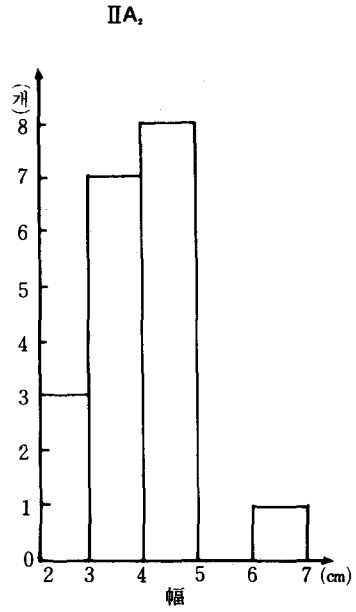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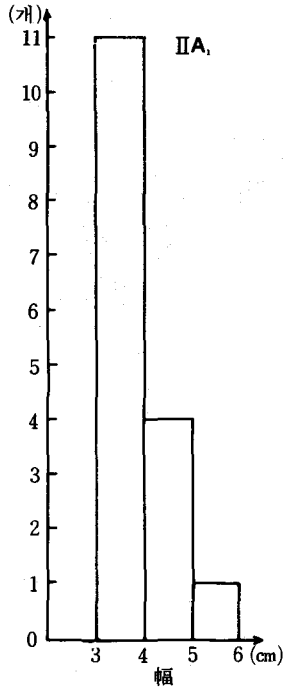


한편 幅의 수치는 IIA_1 의 경우는 3cm~4cm 사이가 11點, 4cm~5cm 사이가 4點, 5~6cm 사이 2點으로 3~5cm 사이가 약 90%를 차지한다. IIA_2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나 폭의 分布가 2cm~7cm로 보다 넓은 느낌을 준다. 폭의 分布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表 7).

두께의 분포는 IIA_1 , IIA_2 관계없이 0.5cm~2.2cm 사이에 분포하며 0.5~1.1cm 사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表 8).

身部の 加工상태는, 완전히 마연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체로 剝片의 주위를 打整한 다음 磨研하였기에 打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인석부(I類)에 비해 側面의 마연이 많이 눈에 띄어 刃部가 있는 앞뒤면과 側面과의 角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또한 자연석

〈表 7〉 〈IIA,과 IIA, 幅 分布圖〉



의 한면을 이용하거나, 완전히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刃部만 만들어 붙인 것도 약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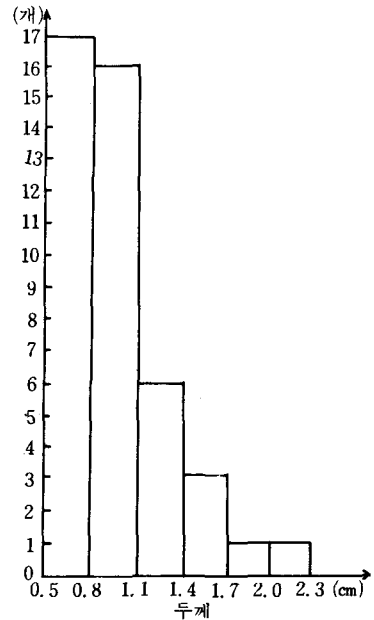
II_b型的 경우는 欣岩里에서는 3點밖에 없어 전체 II類(單刃磨製石斧)에 비해 보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3點中 2點은 12호 주거지에서 나왔고 1點은 9호에서 나왔다. 有溝石斧의 刃部로 보이는 1點을 제외하면 2點은 刃部の 幅이 1.2cm, 2.0cm로 매우 좁아서 그 기능은 좁은 부분을 파내거나 깎는 끝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3) 打製石斧類

혼암리에서 출토한 打製石斧類는 모두 26點에 달하나, 그 중에는 磨製石斧類를 만들다가 만 未成品으로 보이는 것이 5點, 기타 棒狀의 자연석 한쪽 끝 또는 양끝에 간단히 打擊이加해진 것도 있는데 이들은 망치돌등으로 사용되다가 파손된 것인지도

〈表 8〉

II A型的 두께 分布圖



모르겠다. 이외에 확실히 單刃石器로 보이는 것이 1點있다. 以上の 불확실한 것과 單刃石器를 제외하면 모두 17點이 된다. (表 9)

〈表 9〉 欣岩里出土 打製石斧類 集成表

일련번호	總長cm	幅cm	厚cm	구 분	출토거주지
1	17.7	8.4	5.5	a (원통형)	9호
2	14.1	6.2	4.1	a	8호
3	12.0	6.8	5.3	a	5호
4	10.7(파)	7.4	5.8	a	6호
5	12.9	5.9	5.6	a	5호
6	17.6	7.3	5.4	a	5호
7	6.3(파)	4.7	2.5	b(납작형)	12호
8	11.9	4.9	2.7	b	14호
9	10.0	6.3	1.9	b	14호
10	10.1	3.9	1.9	b	12호
11	13.4	4.3	1.6	b	12호
12	10.5(파)	9.6	4.0	b	3호
13	13.5	5.7	3.0	b	3호
14	6.8(파)	5.3	파손	b	1호
15	19.0	6.2	3.1	b	12호
16	17.0	5.4	2.8	b	地表
17	11.1	4.4	2.0	b	14호
18	7.1	5.2	1:1	Ⅱ류 미성품	12호
19	17.2	4.8	3.6	敲石, 양끝이 剝離(?)	11호
20	9.5	5.4	1.9	Ⅱ류 미성품	13호
21	18.5	7.6	6.4	자연석의 한쪽끝이 타격, 敲石	9호
22	13.6	1.9	4.5	chopper (삼각형)	9호
23	13.3	9.8	4.3	미 성 품	9호
24	8.2(파)	6.8	4.2	"	12호
25	9	8.2	1.8	"	14호
26	17	5.7	3	자연석 한쪽 끝에 타격(정삼각형)	地表

17點의 打製石斧를 그 橫斷面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면 대체로 두가지로 된다. 첫째 횡단면이 둥그스름한 것과 비교적 납작한 것인데, 이의 기준으로는 橫斷面의 세로/가로 값이 1/2보다 훨씬 작은 것을 납작한 형태로, 1/2보다 큰 것을 둥근 형태로 보았다. 後者를, 잠정적으로, a형, 前者를 b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a형과 b형은 전체 길이에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a형은 대체로 긴 편인데 비해 b형은 이보다 짧은 것이 많다.

한강유역에서 打製石斧의 출토에는 櫛文土器期の 湊沙里와 岩寺里가 代表的이다. 無文土器期에는 楊州의 芝錦里⁵⁾에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無文土器의 前期段階에는 더 있을 것으로

5) 李白圭, 楊州郡 芝錦里遺蹟, 考古學 4輯, 1977. pp.81-98

생각된다. 한편 漢江 이남지역의 경우는 영산강 유역에서 보고된 바 있다⁶⁾

지금까지 欣岩里出土 石斧類를 몇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여기서 石斧의 各類型別 그 機能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磨製石斧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黃河流域의 中原地方과 그 以南인 揚子江 下流유역 및 東南海岸地域의 農耕文化에서 나타나는 石器이다. 이는 中原以北지대인 長城以北이나 內蒙古等地에서는 打製의 細石器가 主宗을 이루고 있으나 磨製石斧는 볼 수 없는 點으로⁷⁾ 보아 磨製石斧는 일차적으로 農耕과 관계 있다고 생각된다.

磨製石斧가운데서 I類, 즉 兩刃石斧의 用途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掘地具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자리를 판다든가, 식물의 뿌리등을 캐내거나 採集할 때의 경우이다. 그런데, 磨製石斧의 제작에는 상당한 時間과 工力이 所要되기 때문에 精巧함을 要하지 않는 단순 掘地具로서의 用途에는 打製石斧나 필요한 날만 磨研한 石斧가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I類의 경우에 통나무를 벌채하거나 절단하는 거친 일차적인 木工具로서의 用途이다. 통나무를 자른 경우는 日本의 北九州地方의 福州 鳥浜具塚에서 實物이 出土된 적이 있어⁸⁾ 이를 잘 立證해 준다. 이와 같은 用途의 石斧는, 欣岩里의 경우 石斧에 나타난 着裝痕과 石斧의 形態로 미루어, 곧은 자루에 고정하는 直柄裝着法과 굽은 자루에 고정하는 膝柄裝着法의 대체로 두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圖4 參照) 直柄인 경우, 내려칠때 石斧가 자루에 더욱 단단히 부착되게 하기 위해서 斧身의 刃部쪽이 넓고 頭部쪽이 좁은 것이 적당할 것 같다.

다음 II類(單刃磨製石斧)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우선 II류가 무문토기나 즐문토기기의 중기 이후에야 나오고 있으므로 역시 농경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II류석부들은 직접 땅을 파고 통나무를 자르는 등의 거친 작업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소형일 뿐 아니라 두께도 매우 얇아서 耐堅性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농경과 관련된 이차적인 작업, 즉 도구의 제작이나 木工具등의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구제작의 경우 石材를 자르는 擦切具등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砂岩으로 된 편평單刃石斧類(IIA型)는 이러한 용도로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⁹⁾ 이외에는 주로 목재의 껍질을 벗기는 데나 다듬는 데에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實物의 出土가 없어 무어라 할 수는 없지만 農耕의 시작과 함께 여러 종류의 木製農耕具가 필요하게 되고 이들 木製農具의 제작시 II류의 石斧가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IB, 즉 횡단면이 柱狀이거나 원형인 종류의 단인 석부들도 대체로 木工具로 보이나, 이

6) 崔夢龍·李榮文, '全南의 先史文化', 全羅南道誌 第一卷, 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1982. 10. p. 213.

7) 東亞考古學會, '內蒙古·長城地帶', 東方考古學叢刊 2種 第一冊, 1935. pp. 55-58.

8) 鳥浜貝塚研究グループ '鳥浜貝塚-繩文前期を主とする低濕地遺蹟の調査1' 1979. 福井縣教育委員會.

9) 金用干, '江界市公貴里 原始遺蹟 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6輯, 1959. pp. 34-35.

중에 刃幅이 좁거나 소형인 것은 흙을 파는 데에 소용이 있어 석기제작, 특히 흙을 가진 석기류의 제작에 쓰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인폭이 넓은 것은 有溝石斧와 동일한 용도의 木加工 工具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¹⁰⁾

다음 打製石斧의 用途에 대해서는 최근에 火田農業과 관련이 있는 掘地具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¹⁾ 賀川光夫는 繩文晩期에 稻作이 行해지는 것을 水田이 아닌 陸田, 즉 火田농업의 형태라고 전제하고 이에 사용된 石斧가 편평한 打石斧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火田농업의 형태에서 稻作이 행해짐을 東南亞의 여러 원주민·미개집단의 民族誌를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欣岩里의 경우 打製石斧와 炭化米사이의 관계가 혹시 火田농업형태와 관련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럼 끝으로 欣岩里에서 石斧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性格의 일단을, 역시 炭化米가 출토하여 稻作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는 松菊里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혼암리 유적 자체내에서의 변천의 여부를 알아 보도록 하자.

松菊里에서 出土하는 石斧類는 I類가 7點, II類가 10點, II B類가 5點 그리고 有溝石斧가 6點으로 모두 28點¹²⁾으로 欣岩里의 99點에 비해 훨씬 적다. 물론 算術的으로 한 비교가 그대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松菊里는 住居址가 19, 欣岩里는 16개소가 발굴된 것을 비교하면

(表10) 혼암리와 송국리의 석부류 비율표

유적 구분	欣 岩 里		松 菊 里	
I 類	24點	24%	7點	25%
II A 型	46點	46%	10點	35%
II B 型	2點	2%	5點	18%
有溝石斧	1 (?)	1%	6點	22%
打製石斧	26點	27%	0	0%
비 고	어 망 추 있음		어 망 추 전 혀 없 음	

(%는 전체 석부류중의 해당 석부의 비율임)

石斧類의 비중이 欣岩里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이들 석부류중에서 각 型式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表10).

이 표에서 보면 I類와 II A類의 비율은 비슷하나, II B는 송국리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有溝石斧의 경우 사실상, 소편에 지나지 않아 그 구분조차 힘든 1點밖에 없는 欣岩里에 비하면 松菊里는 월등히 많다. 그 기능상 II B와 有溝石斧는 같은 부류로 생각되므로 혼암리에서는 石斧類中 3%에 지나지 않던 기능이 松菊里에서는 40%로 되고 있다. 이에 반해 打製石斧類는 송국리에서는 보이지 않아¹³⁾이 타계석부의 기능의 비율은 혼암리의 21%에서 송국리에서는 거의

10) 盧赫眞, '有溝石斧의 研究', 서울大碩士論文(油印物), 1981. pp. 30-36.

11) 賀川光夫, '繩文農耕論一·二問題' 鏡山猛先生 古稀紀念 古文化論巧, 1982. pp. 109~116

12) 姜仁求·李健茂, '松菊里 I',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十一輯, 1979. pp. 128-131 및 도면 1~127.

13) 松菊里에서는 타계석부로 보이는 단 1點이 地表採集되었으나, 類例가 없고, 또 刃部를 마연하고 있는 點을 감안하여 磨製石斧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註 12) p. 135 및 도면 124 ㉠.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石斧類내에서의 그러한 비중의 차이는 다시 말하여, 그러한 石斧類가 가지는 기능의 비중의 차이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암리에서의 打製石斧의 역할이 송국리에서는 없어지고 대신 혼암리에서는 거의 그 역할이 없던 II B류와 유구석부의 역할이 월등히 많아 짐을 알 수 있다. 앞서 필자들은 打製石斧는 火田農耕과 관련있는 掘地具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말했고 또 有溝石斧는 木工具의 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有溝石斧는 중국의 華南지방의 有段石斧와 관계 있고 또 그 지방의 稻作과 함께 傳來해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¹⁴⁾ 稻作과의 연관도 고려된다.

따라서, 이상의 石斧類의 비중상의 차이를 농경의 형태상의 차이로 보고자 한다. 欣岩리의 경우는 火田의 형태로 벼와 잡곡¹⁵⁾을 재배하는 한편, 가까이 있는 江가에서 漁撈에도 종사하는 복합적 성격을 보이는 반면, 松菊里에서는 벼의 재배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지는 水田재배의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바로 곁의 南漢江과 또 주거지내의 漁網錘의 出土로 미루어 漁撈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혼암리와 같은 火田농경형태를 취한다고 생각되는 오늘날의 東南亞 奧地의 각 원주민 종족들의 민족지¹⁷⁾는 먼저 적당한 산허리를 골라서 일정한 범위내의 나무를 벌채하여 시들게 한 후 불을 지른 뒤에 그루터기 등을 대충 치우고 재속에 흙을 약간만 파고 씨앗을 넣는다고 알려준다. 主作物은 대체로 벼이고 主作物 이외에 곳에 따라 각기 다르나 대체로 조, 콩 등의 잡곡과 輪作으로 2~5年 동안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火田農業을 하는 종족들은 씨앗을 뿌린 후 수확기까지는 주로 수렵등에 종사한다고 한다. 이러한 火田農業으로 벼를 재배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교적 최근까지 陸稻가 있어, 先史時代의 농업형태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송국리가 水田농업형태의 稻作이라고 생각되는 點은, 첫째, 유적의 입지가 넓은 벌판을 끼고 있는 얕은 구릉이라는 점, 둘째, 혼암리의 炭化米에 비해서 크기가 더 크다는 點,¹⁸⁾ 셋째, 혼암리에는 볼 수 없던 II B류와 유구석부의 새로운 출현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음 <표11>은 혼암리의 각 住居址別 출토 석부의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주거지의 배열 순서는 登高線에 따라 江에서 점차 높은 곳으로 하였다. 이는 높은 곳의 12호 주거지부터 13호, 14호의 가장 낮은 곳의 세 주거지 출토 시료를 C₁₁ 연대를 낸 결과 12호가 가장 빠르고 14호가 늦은 것으로 나와, 주거지의 입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¹⁹⁾ 보고

14) 金元龍, '韓國栽稻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第25; 26, 27合輯, 1964. 12. pp. 299~308.

15) 혼암리에서 나온 잡곡으로는 12호 주거지에서 보리, 수수, 조 등이 있다.

16) 前掲文(註4)의 바.

17) 前掲書(註11), pp. 109~113.

18) 혼암리나 송국리 모두 炭化米의 품종은 Japonica이나, 송국리가 좀더 크다. 이는 慶州月城址出土와 부여 군창지 출토의 炭化米가 혼암리와 비교하면 큰 점에서 남득이 간다.

19) 任孝宰, 前掲文(註3), p. 41.

있기 때문이다.

高度에 따른 住居址 배열에서의 各 型式의 石斧類 分布는 <표11>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漁網錘를 넣은 것은 능선상의 高低와 江과의 遠近이 일치하므로 그에 따른 어망추의 分布를 봄으로써 어로에의 의존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까 해서 이다.

<表11> 欣岩里 住居址의 高度別 各 型式石斧 分布表

標高	주거지	IA	IB	IA-B	I類計	IIA ₁	IIA ₂	IIB	II불명	II類計	打製	漁網錘	C. 年代
高 ↑	1	①		②	③	①				①	①		
	2 (礮石)	①			①	②			①	③			
	3										②		
(113M)	12	⑥	①		⑦	⑤	⑥	②	②	⑮	⑥	⑨	1490~1650 (1570) 1030~1300 (1165) B. C. 1170~1390 (1280) 780~930 (855)
	8						①			①	①		760~1100 (930) B. C. 780~1110 (945)
	9			①	①	②	②	①	①	⑥	③	⑭	
	10												
	11						①			①	①	⑬	
低 ↓	4 (礮石)					①				①		①	
	5	①			①	①				①	③		
	6	①	①		②						①		
	13		①		①	①				①	①	②	400~470 (435) B. C. 70~390 (230)
	7 (礮石)		①		①							①	2520±220 B. P. 1810±190
(91M)	14	①			①		②			②	④	⑮	140~400 (270) B. C. 10~380 (195)

(C.년대중 B.C.로 표시된 것은 Rhalt의 보정법에 의해 補正된 年代임. ○内の 숫자는 출토유물의 수량임.)

우선 石斧類의 分布결과를 보면, 江을 面한 斜面에서 비슷한 高度에 있는 몇개의 주거지를 5개의 群으로 묶어 나누어 본 결과, 대체로 高度가 높을수록 I類의 石斧가 많은 양상을 보인다. 가장 많은 주거지는 12호로 7개이고, 고도가 가장 낮은 7호와 14호는 각각 1개씩이다. 다음 II類의경우는 12호가 15개로 가장 많고 다음 고도가 낮아 질수록 각 群이 적어진다. 이 점은 I類와 마찬가지로 高度가 높을수록 많은 分布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한편, 打製石斧는 고도별로,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이나, 역시 가장 출토수가 많은 곳은 12호이다.

끝으로 어망추는 대체로 비슷하나 제일 많은 群은 14호와 7호로 고도가 낮은 쪽이다. 그런데 11호의 경우는 石斧類의 수는 빈약하나, 어망추는 단일 주거지에서 13개로 14호 다음으로 많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혼암리 유적은 주거지군내의 시기적 先後와 구릉의 고도에 따른 석부류내의 뚜렷한 변화를 볼 수는 없다. 그런데 C.의 연대를 보면, 最古는 12호의 B. C. 1000

년경 부터 가장 늦은 14호의 B.C.200년경까지 무려 800년간의 기간을 보이고 있으나 과연 동일 유적에서, 生業수단이 集約農耕이 아닌 이상 그렇게 지속하여 살 수 있는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같은 유적점유기간 (Site occupation term)에 대한 고찰은 좀더 확실성을 보이는 자연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해야겠지만 우리가 앞서 본 石斧類의 고찰과 곡물출토로 보아 혼암리의 생업 형태가 火田農耕과 수렵 및 어로의 복합경제라고 한다면, 장기간의 동일유적의 계속적 점유는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이 같은 긴 시간의 폭은 앞으로 再考되어야 하겠다.

나. 石 劍

磨製石劍은 금속문화의 영향이 한반도 지역에 파급되면서 出現하는 石器中 代表的인 것으로, 有溝石斧와 더불어 韓半島의 文化形成에 영향을 주어 왔던 中國이나 시베리아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²⁰⁾

마제석검이 가지는 그러한 分布上의 특성 및 그 문화적 내용의 규명을 위한 연구는 일찍부터 여러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마제석검의 型式은 일찌기 有光教一에 의해 分類되었다.²¹⁾ 그는 石劍의 柄의 형태에 기준하여 莖部만 있는 A式과 자루가 있는 B式으로 크게 나눈 다음, B式은 다시 통자루식인 BII와 이단으로 된 가운데가 홈으로 잘룩한 것을 BI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은 다시 劍身의 형태에 따라 血溝가 있는 a形과 血溝가 없는 b形으로 나누었다. 이외에 외양이 삼각형인 c式, 柳葉形인 D式, 그리고 A式의 莖部가 넓어진 말기 양식의 E式으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마제석검은 A·B式에 속한다.

有光教一은 그의 型式分類에 의거하여 Aa와 BIa의 有血溝式劍이 細形銅劍의 血溝를 模倣한 것이라 보고, 이를 最古의 始原型式으로 설정하고, 그 연대도 세형동검의 출현보다 늦은 그上限이 B,C. 3세기 경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세형동검 모방설과 B,C. 3세기 상한설은 한때 통설로 인정되었으나, 坡州의 玉石里의 北方式支石墓下의 한 住居址에서 血溝가 있는 二段柄式의 마제석검이 나오고, 그와 共伴한 試料를 방사선 탄소연대를 내어 본 결과가 서기전 6세기 경 (2590±105 B.P.)²²⁾ 으로 나와 有光教一의 說은 再檢討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마제석검에 대한 祖型 및 年代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Ordos銅劍祖型說,²³⁾ 各型式別로 다르다는 多元祖型說,²⁴⁾ 국내 未出의 劍祖型說,²⁵⁾ 中國의 桃氏劍 등 中國銅劍祖型說²⁶⁾ 등이 있다.

마제석검의 한반도내의 分布를 보면 有莖式과 有柄式의 경우, 함경도 지방을 제외한 전역으로 이는 대체로 支石墓의 分布와 일치하고 있다. 출토유적은 주로 支石墓, 石棺墓등의 분묘유

20) 尹容鎮, '靑銅器文化의 石器·骨角器' 韓國史 I, 國史編纂委員會, 1977. p. 295.

21)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의 研究', 京都, 1959.

22) 金載元外, '韓國支石墓의 研究', 國立博物館, 1967. pp. 75~76.

23) 金元龍, '韓國磨製石劍 起源에 關한 一考察' 白山學報10輯, 1971.

24) 金良善,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形考定の 問題' 梅山國學散稿, 1972. pp. 29-52.

25) 金載元外, 前掲書(註 22).

26) 全榮來, '韓國磨製石劍·石鏃編년에 關한 研究' 馬韓百濟文化第 4·5 合輯, 1982. 6. pp. 64-71.

적이나 근년의 住居유적 발견例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반도의 마제석검 출토 住居유적은 다음 표와 같다(表12).

〈表 12〉 韓半島內的 住居遺蹟 出土 石劍

有 莖 式 石 劍		通 柄 式	二 段 柄 式	
有 血 溝	無 血 溝		有 血 溝	無 血 溝
金 消 里 ②	石 橋 里 ① 沈 村 里 ② 新 興 洞 ① 石 灘 里 ⑩ 실 바 위 ① 立 石 里 ① 松 菊 里 ①	智 塔 里 ① 松 菊 里 ⑦ (소형으로 보통 통병식 석검 보다 매우 작고 연약함) 欣 岩 里 ① 斗 井 里 ①	猿 岩 里 ① 玉 石 里 ①	明 逸 洞 ① 浦 南 洞 ② 松 菊 里 ① 欣 岩 里 ④
2	23	10	2	8

(유적 옆에 ○속의 숫자는 출토 석검점수임)

혼암리의 경우 1호 주거지에서 斷面菱形의 劍身部片 2點, 8호에서 검신부편 1點, 12호에서 이단병 무혈구식 3點, 1단병식 1點, 유혈구 검신편 3點등 모두 7點이 나왔다. 그의 地表채집으로, 단면 렌즈형 검신편 2點과 二段柄式 柄部片 1點으로 모두 3點이다. 혼암리 출토 총 점수는 12點에 이른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 〈표 13〉과 같다.

〈表 13〉 欣岩里 出土 磨製石劍 集成表

連番	柄部形態	柄部斷面	劍身斷面	血溝有無	비 고	출토지
1	2段柄	렌즈形	菱 形		劍身部 半絶斷	12호
2	"	"	"		劍身이 柄에 비해 짧음. 2차 가공	"
3	"	"	렌즈形		劍身이 매우 짧음. 2차 가공	"
4	"	"	파 손		柄 部 片 임	地表
5	1段柄	"	菱 形		柄部마연이 粗惡함	12호
6			"	○	劍 身 파 편	"
7			"	○	"	1호
8			(1면剝落)	○	" (1面剝落)	8호
9			菱 形		劍 身 파 편	1호
10			"		"	"
11			렌즈形		"	地表
12			"		"	"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 한국지역에서는 智塔里와 猿岩里的 그 例

를 제외하면 모두 有莖式이 出土하고 있다. 한편 혈구의 유무는 유경식이 확실한 경우는 금탄리의 1例밖에 없으나, 二段柄의 경우는 猿峯里에서 1點, 磧巴위에서 1點, 智塔里Ⅱ지구에서 1點으로 모두 4點이 나왔는데 이들은 有血溝式이다. 이밖에 柄部缺失로 인해 不明이나 有血溝式 劍身片이 金灘里에서 1點 出土되었다. 이와 같은 有血溝式 有莖式의 先後관계는, 최근 角形土器유적의 土器型式 및 共伴유물로 편년한 韓永熙는 石橋里를 가장 이른 곳으로 보고 있는데²⁷⁾ 이곳에서는 無血溝의 有莖式 뿐이므로, 有血溝가 있는 것이 이보다는 後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灘里의 석검은 금탄리 주거지보다는 이른 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석교리와 시간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서 거의 동시로 볼 수도 있겠다. 한편 甲元眞之도 그의 最近의 한반도 支石墓에 대한 再檢討를 하면서 有血溝式 有莖式劍과 無溝式 有莖式劍이 처음부터 병존하는 이른 양식으로 본 바 있다.²⁸⁾ 한편 연대에 대해서는 韓永熙는 석교리와 금탄리 주거지 이외의 출토품을 角形土器의 早期로 說定하고 그 연대를 서기전 10~9세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유경식 석검의 출현도 비슷한 시기로 생각되며 처음부터 거의 시간차가 없이 유구와 무구가 并存한 것으로 보이나, 有血溝式의 출토예가 별로 없는 점으로 미루어 無血溝가 더 많이 제작된 듯하다.

다음 한강유역의 경우를 보면, 우선 玉石里는 방사선 탄소 연대결과가 2590 ± 110 B.P.로 이를 Ralph의 年代補正法에 따라 補正한 年代는 740~900 (845) B.C.로, 780~1110 (945) B.C., 760~1100 (930) B.C. (Ralph 補正年代)²⁹⁾의 C¹⁴연대를 낸 欣峯里 8호住居址와 비슷한 시기이다. 그런데 혼암리 8호에서는 有血溝가 있는 鏡身편만이 출토되었다. 玉石里에서는 독특한 양식의 소위 二節柄이므로 혼암리의 경우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鏡身에 혈구가 있는 공통점이 있어 한강유역의 석검의 혈구는 대체로 玉石里주거지와 혼암리 8호의 시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李白圭에 의한 경기도지방의 무문토기 유적의 편년연구에서 玉石里를 가장 이른 곳으로 보고 있어³⁰⁾ 玉石里를 한강유역에서 혈구가 마제석검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혼암리의 12호의 경우는 二段柄석검이 3점이나 출토하고 있어 마제석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一段柄도 1點이 있으나, 이는 바닥면 출토가 아니라, 퇴적층이므로 바닥의 방사선관소 연대를 적용하기가 적당치 않다. 따라서 혼암리의 경우 二段柄석검은 12호의 C¹⁴연대가 1570 B.C., 1165 B.C. (補正年代), 855 B.C., 1280 B.C.의 결과를 내고 있어, 대체로 B.C. 10세기 이후로 볼 수 있겠으나, 實年代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기전 7세기 前後로 보아야 할 것 같다. 一段柄은 동일시기거나 이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디까지나 혼암리 12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一段柄과 二段柄間의 시기적 선후, 기능상의 차이 및 사

27)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合輯, 1983. 12. pp. 113-128.

28) 甲元眞之, '朝鮮支石墓の再檢討' 鏡山猛先生古稀紀念古文化論巧, 1982. pp. 241-267.

29) 12호 주거지 炭化米부근의 시료에서 나온 C¹⁴연대는 3210 ± 70 B.P., 2920 ± 70 B.P., 2620 ± 100 B.P., 2980 ± 70 B.P.를 Ralph의 補正年代로 바꾼 것임. 補正年代는 崔成洛 '放射性 炭素測定年代 問題의 檢討' 韓國考古學報 13輯, 1982. 12. p. 92를 따랐음.

30) 李白圭,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 第三輯, 1974. pp. 53-111.

회적인 의미가 다른가는 여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住居유적에 二段柄式石劍이 많다. 또한 혈구도 住居유적출토 석검에 많이 보여서 이를 실용과 부장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조심스런 제안도 있다. 한편 혈구에 대해, 전혀 실용성이 없는, 다만 支柱의 모방을 음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나,³¹⁾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그렇게만 이야기 할 수 없다. 한편, 실용성에 대해서 尹德香은 柄部の 斷面형태가 렌즈형인 것은 實用器이고 菱形인 것은 副葬 등의 儀器라고 생각하였다.³²⁾ 그리고 석검의 파손 부위는 刃部에 많아 住居址에서 사용되었다면 사용부위는 刃部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松菊里의 석검들은 매우 소형인데다 柄部가 3~4cm로 거의 실용성이 없는 석검이 많아 住居址出土가 모두 實用이었다는 단정은 어렵다.

끝으로 血溝 및 柄을 二段으로 만드는 과정에 靑銅器가 使用되었으리라는 추측이 있다.³³⁾ 현재로서는 청동기의 출토예가 많지 않아 불확실하나, 금탄리 8호 주거지에서 銅鑿 1點이 출토된 예가 있어³⁴⁾ 비록 석검출토와 동일 장소는 아니나 가능한 견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溝나 柄의 段을 편평한 砂岩製의 單刃 또는 兩刃의 石器로 擦切의 手法을 쓰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혼암리의 경우는 아직 청동기의 存在가 알려진 바가 없어 석기제작에 청동기가 쓰이지 않았다고 본다. 제작과 관련하여 끝으로 언급하여야 할 문제는 石劍 역시 석촉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수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제작은 전문 장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석검중 柄에 비해 신부가 非正常的으로 짧아진, 이차가공의 흔적이 뚜렷한 것이 2點이나 있는 점과 이단병의 경우 12호출토 2점 모두 柄의 段이 제작수법상 꼭 같은 點으로 보아 그러리라 생각된다. 이같은 전문장인 집단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확실한 실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彌生中期의 北九州지방에서는 石斧와 반월도등이 재료를 구하기가 쉬운 곳에서 집단으로 제작되어 반경 4~5km의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다. 環狀石斧

環狀石斧는 말 그대로 둥근 돌을 그 둘레에 날을 세워, 가운데에 자루를 꽂기 위한 구멍을 만든 것으로 이것과 같은 계통으로는 多頭石斧가 있다. 다두석부중 더욱 발전하여 잇발이 톱니바퀴처럼 많이 달린 星形石斧등도 있으나 결국 같은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환상·다두석부는 그 分布가 매우 넓어, 中國의 해안지방, 일본을 비롯한 남방도서지방 그리고 멀리 중남미 대륙에서도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³⁶⁾

한반도내에서의 分布는 대체로 전국적 分布를 보이거나 지역적으로 조밀의 차이를 보여 서북지방에 많고, 한강을 벗어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

31) 甲元眞之, '朝鮮半島の有莖武磨製石劍', 古代文化 第二十四卷 7號, 1972. pp. 193-200.

32) 尹德香, '韓半島 磨製石劍의 一考察',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油印物), 1977.

33) 都有浩, '朝鮮原始考古學', 1960. p. 110.

34) 金用珩, '金灘里 原始遺蹟 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10輯, 1965. p. 38.

35) 森貞次郎, '北部九州の 古代文化', 明文社, 1975. pp. 94-103.

36) 前掲文(註 20), p. 293.

음과 같다(表 14).

〈表 14〉 환상석부 출토 유적표

압록강·청천강유역	대동강·황해도지방	한강유역지방	한강이남지역	동북지방
평북 벽동 송련리	황해 황주 십촌리	경기 양주 芝錦里	충남 부여 松菊里	함북 회령 창효 저수지
" 용천 왕산리	" 봉산 신흥동	" 仁倉里	충북 제천 黃石里	함남 용천 가평리
" " 신암리	" 황주 석탄리	" 東倉里	전남 화순 獐鶴里	함남 영흥읍
" 북창 대평리	" 인산 주암리	성북 高德里		
	평양 입석리	양주 新俗里		
	" 실바위	" 健元陵		
		파주 玉石里		
		여주 欣岩里		

혼암리에서 출토한 환상석부는 모두 6點이다. 그중 12호출토 1點만이 완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편에 불과하다. 출토지는 12호가 1點, 78년도 발굴시 출토한 것(15호, 16호 각각 1點) 2點, 표토채집 3點이다. 15호출토 1點은 주변의 刃部가 매우 무디고, 中孔이 천착단계의 小孔이라 未成品으로 볼 수가 있다. 中孔의 穿孔방식은 12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兩面穿孔이다. 12호의 것은 一方착공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환상석부는 요동반도 등지에서도 볼 수 있어 마제석기류와 같이 무문토기 초기에 들어와서 中期무렵에는 비교적 널리 사용된다.³⁷⁾ 李白圭는 혼암리의 출토예를 동북지방과 연결시키고 있으나,³⁸⁾ 동북지방과 경기지방간의 孔坭土器와 赤色磨研土器는 형식상의 연관을 지을 수 있으나 환상석부의 경우는 두 지역 사이에 공백지대도 있어 굳이 동북과의 관련보다도 오히려 각형토기 지역과의 관련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없는 생각인 듯 하다. 다두석부와 환상석부의 용도에 대해서는 곤봉두등의 무기나³⁹⁾ 집단의 지휘자의 지휘봉⁴⁰⁾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 石 槍

석창은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사냥과 전쟁에 필요한 도구와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는데 보통 활, 칼 등과 함께 한 셋트를 이루어 나타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석창은 20cm정도의 소형으로 형태상 화살촉과 돌칼의 중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루가 달린 석창의 전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부분의 자루는 썩어 없어지고 창자루에 달리는 끝부분(槍先)만 발견된다. 석창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자루끝에 부착되어 수지, 아스팔트, 끈 등으로 견고하게 고착이 된다. 그러나 석창의 다음 단계에 나오는

37) 李白圭, 前掲文(註 30), pp. 6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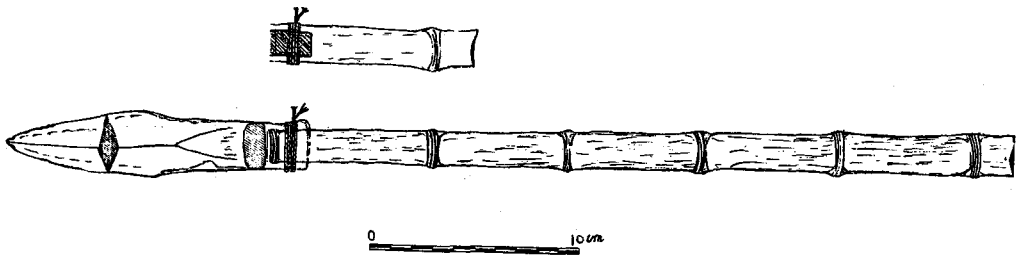
38) 前掲文, p. 70.

39)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7. p. 99.

尹容鎮, 前掲書(註 20), p. 293.

40) 黃基德, '무덤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회관계' 考古民俗, 65-4.

청동제의 창(銅矛)이 자루가 꼭 끼이게 되어 있는 插入形인 반면에, 석창의 경우는 대부분 자루에 대어 고착시키는 附着形이 특징인 것이다.⁴¹⁾



석창의 복원도(崔夢龍 註 41의 論文에서 引用)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서 발견되는 석창의 분포, 공반유물관계, 형식, 연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모와 형태적으로 틀리며 또 같은 시기에 사용했던 돌칼, 검과도 기능적으로 틀리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관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석창은 대나무와 같은 탄력이 있는 나무자루에 부착되는 것으로, 부착될 때 좀더 견고한 기능을 갖기 위해 돌칼, 화살촉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점이 석창을 다른 것들과 구분시켜 주고 있다. 즉 끝부분에 끈을 맬 수 있는 홈이나, 좌우가 돌출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코등이 石劍과 달리 기능상 반드시 돌출하고 있지 않다.

석창은 마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용되는 시기는 석검, 화살촉의 공반관계로 보아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듯 하다. 全南 和順 二西面 滄浪里⁴²⁾에서는 석창이 지석묘의 석실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사회의 지석묘 축조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암리의 경우는 14호의 1點밖에 없는데 長17cm, 幅 5.5cm, 두께 0.7cm의 크기에 단면이 렌즈형이다. 양측면은 날을 세우지 않았으나, 鋒部는 뾰족하다. 柄과 장착되는 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갔으나 아마 보트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보트형은 각형토기유적인 新興洞⁴³⁾과 大坪里(北倉郡)⁴⁴⁾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있으나, 신흥동 것은 앞뒤면에 血溝가 있다. 한편 有莖形은 신흥동, 입석리,⁴⁵⁾ 석탄리⁴⁶⁾의 주거지에서 출토하고 있고, 남한 지역에서는 전남의 영암 鳩林里,⁴⁷⁾ 和順 滄浪里⁴⁸⁾ 및 新安 飛禽島⁴⁹⁾ 해저가 그 출토지로 알려져 있다.

41) 崔夢龍, '月出山地區의 先史遺蹟' 文化人類學 7輯, 1975. pp. 65-78.

42) 崔夢龍外, '同福嶺 水沒地區 支石墓發掘調查報告書' 光州市, 1982. 圖面 25.

43) 前掲書(註27), p. 103.

44) 前掲書, p. 103.

45) 李元均·白龍奎, '平壤市 勝湖區域 立石里 原始遺蹟 發掘簡略報告' 考古民俗62-4, 1962. pp. 79-80.

46) 朴善훈·이원근, '석탄리 원시유적 발굴중간보고' 考古民俗65-3, 1965. p. 38.

47) 崔夢龍, 前掲文(註41), p. 76.

48) 崔夢龍, 前掲文(註42), 圖面 25.

49) 崔夢龍, 前掲文(註41), p. 76

崔夢龍은 전남지방의 石槍을 고찰하면서,⁵⁰⁾ 石槍과 石劍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把部가 길다든가 파부의 좌우에 柄에 밀착하게 결박하기 위한 홈이 있는 것, 그리고 鐔部의 頭出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부여 송국리 주거지 출토의 소형 석검들은 석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알려진 석창은 다음 표와 같다(表 15).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강유역의 출토에는 혼암리가 유일하다. 끝으로 석창의 용도는 무기, 釣業用작살 등으로 보는데, 후자의 경우는 신안 비금도의 해저에서 출토한 것으로 전하는 소장품이 있어 작살로서의 용도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혼암리의 경우는 출토예가 유일해서 무어라 할 수 없으나, 14호가 바로 강가에서 얼마 안되는 곳이고 어망추의 출토도 많은 곳이라 조업용 작살로서의 용도로도 볼 수 있겠다.

(表 15) 石槍出土表

서북한 지역	동북한 지역	남한 지역
평북 영변 細竹里	함북 무산 虎俗里	경기 여주 혼암리
" 북창 大坪里	" 길주 평음리 영암촌	전남 나주 영산포 부근
황해 황주 沈村里	" 영천 만호리	" 화순 滄浪里
" " 긴 동	" 중성 통관리	" 영암 鳩林里
" " 石灘里	" 경원 원봉산	" 신안 비금도
" " 친진동		전남대 박물관 소장품
" 봉산 新興洞		광주 박물관 "
평남 평양 立石里		공주교대박물관 "
" " 칠바위		
" " 금탄리		

三、後 言

지금까지 欣岩里住居址에 出土한 各種의 石器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몇 가지 點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石斧類를 磨製兩刃(I類), 磨製單刃(II類) 및 打製類로 나누고 이를 다시 그 形態상의 특징에 따라 細分해 보았다. 이러한 石斧의 分類는, 지금까지의 대체로 기능을 함축한 용어의 사용을 삼가고 가능하면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류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둘째, 石斧의 各類型別 기능을 추론하여 본 결과, 磨製兩刃(I類) 石斧는 집자리등의 정교한 掘地具나, 벌채 및 거친 작업의 1次的인 木工具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리고 磨製單刃(II類) 石斧는 대부분 細密한 작업의 2次的인 木工具로 생각되나, 두께가 얇은 것 중에는 石器 제작시의 擦切具의 용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打製石斧의 경우는 특히 火田農業과 관련있는 掘地具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炭化穀物의 출토와 더불어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欣岩里에서의 炭化米出土와 관련하여 역시 炭化米를 낸 松菊里유적과 石斧의 各類型別 구성을 比較하여 보았는데, 혼암리의 경우에는 IA류와 IB가 있었고 II는 거의 없다. 반면 송국리에서는 IIB가 많고, 대신 혼암리에서 많은 타제석부가 없었다. 송국리와 혼암리의 탄화미가

50) 崔夢龍, 前掲文(註 41), pp. 75-76.

同種이나, 혼암리가 보다 작고, 방사성탄소연대도 더 올라간다. 이를 농경형태상의 차이로 받아 들여, 혼암리는 火田式 農耕과 수렵·어로에 의존하는 기본적인 단계라면⁵¹⁾ 송국리는 水田농업이 시작된 다음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마제석검은 혼암리에서 모두 12點이 나왔으나, 12호에서 집중출토 현상을 보여, 이곳에서 石劍이 專門匠人에 의해 製作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들 혼암리의 二段柄式石劍은 한강 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劍身에 보이는 血溝는 서북지역의 경우 각형토기 早期단계에 무혈구의 石劍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 그 연대를 서기전 10세기 이후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 볼 때 서기전 7세기 전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석검의 제작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장인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欣岩里 住居址가 속하는 사회는 族長을 중심으로 하는 階級과 專門職業人을 바탕으로 하는 社會組織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⁵²⁾ 이는 석검의 使用흔적이 많고 使用時의 2차 가공기술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2차가공은 自家手工이고 원래 만들어진 제품은 전문장인집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혼암리의 경우 12호와 13호 주거지의 일부분에 석기제작에 관련된 石器

〈表 16〉 欣岩里 出土 石器의 石質

석기	석질	염기성 영암	천 매암	안 삼암	섬 록암	화 강암	응 회암	석 영암	규 암	석 영반암	각 섬암	편 마암	사 암	slate	shale	horn- -fles	편 암
석부 I 류		○	○	○	○							○			○		
석부 II 류			○	○								○	○	○			○
타제 석부		○				○					○		○				○
석도												○		○			○
지석						○				○			○				
석검·석창													○			○	
석봉·고석						○			○				○				
방추차			○				○						○	○			
연석													○				
대석								○					○				
석촉					○									○			
석재					○								○	○	○		
타제 석기류			○			○										○	○

51) 崔夢龍外, 前掲文(註4)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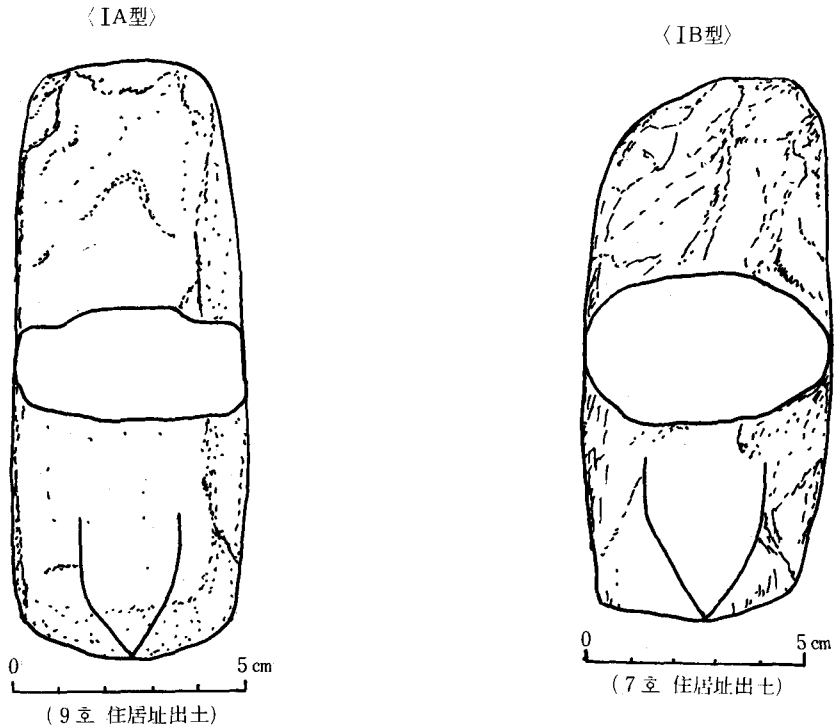
52) 崔夢龍·朴洋震, 前掲文(註1), p. 169.

들이 많아 이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石器에 使用된 석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혼암리에서 출토하는 모든 석기의 石質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表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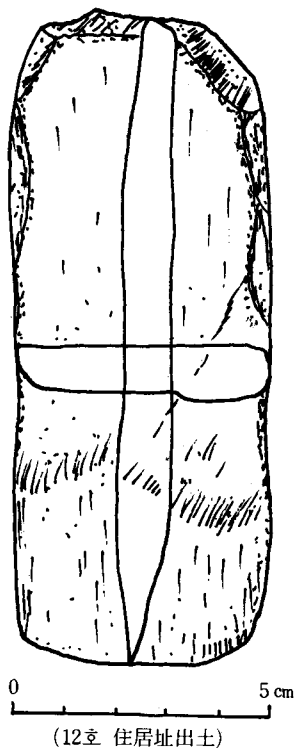
표를 보면 석질의 종류는 모두 16종에 이른다. 石器에 따른 석질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석기의 종류에 따라 석질이 한정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석부류는 비교적 석질이 다양하나 석검, 석창, 석촉, 방추차, 숫돌등은 비교적 석질이 국한되어 있다. 이는 석검, 석촉, 석창, 방추자등에서 그 두께가 얇고 편평한 성질을 가지는 석질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또한 숫돌은 화강암이나 砂岩이 많다. 이는 잘 갈리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한편, 타제석부와 마제양인석부(I類)의 석질이 다양한 것은 川石과 原石을 골라서 타정한 후에 刃部와 身部를 마연하는 제작공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自然面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 신석기이래 한강유역의 礫石斧전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 현재로서 무어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環狀石斧와 石槍의 存在는 기능·용도의 문제와 아울러 欣岩里遺蹟의 性格을 他遺蹟과 比較하는데 있어 重要한 資料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1985. 5. 2)

〈圖 1〉 欣岩里出土 各種 磨製 兩刃(I類) 石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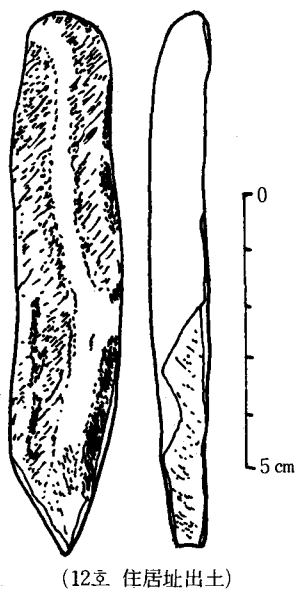


〈圖 2〉 欣岩里出土 各種 磨製單刃(Ⅱ類)石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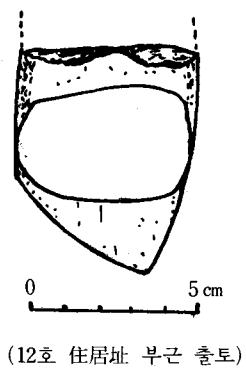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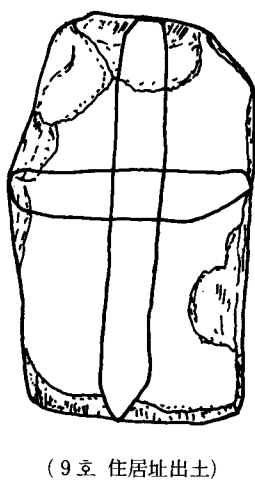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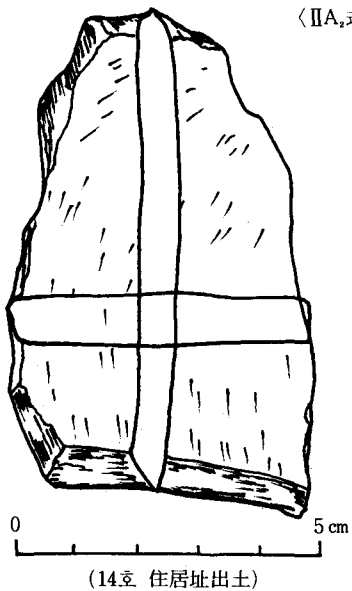
〈ⅡA,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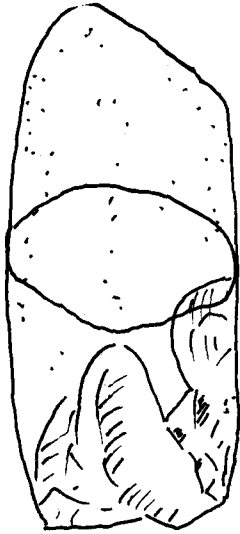
ⅡB型



〈ⅡA₂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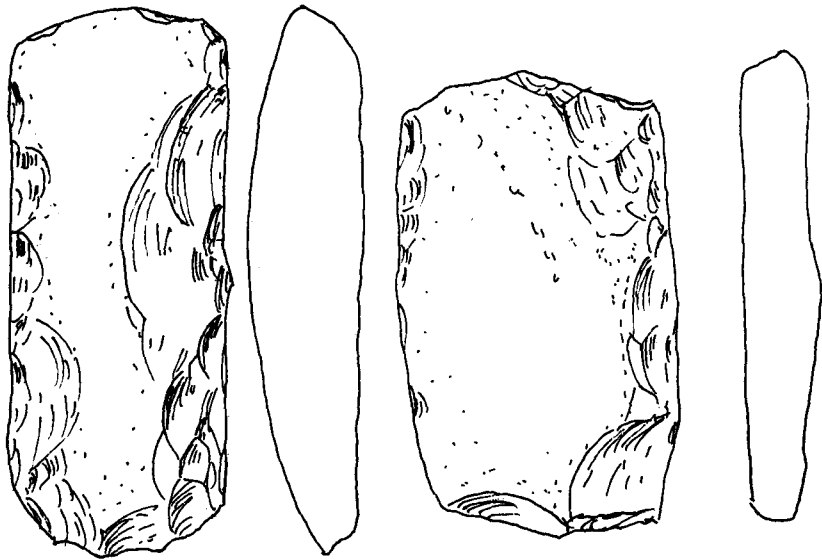
〈圖 3〉欣岩里出土 打製石斧類



(8 号 住居址 出土)



(12 号 住居址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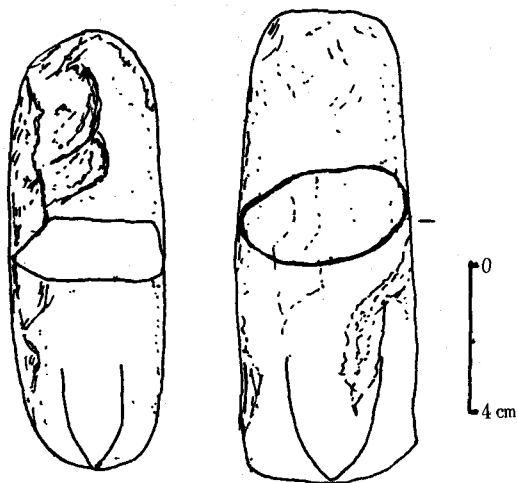


(14 号 住居址 出土)

〈圖 4〉欣岩里出土 磨製兩刃石斧(I類) 및 그 推定 裝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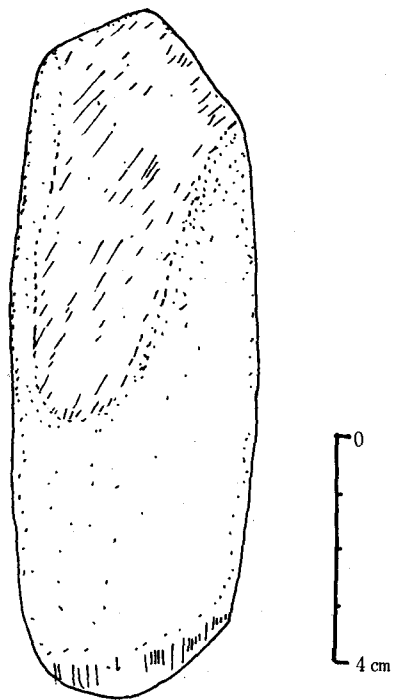
膝柄裝着法斗 石斧

直柄裝着法斗 石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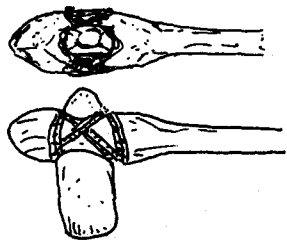


(6호 住居址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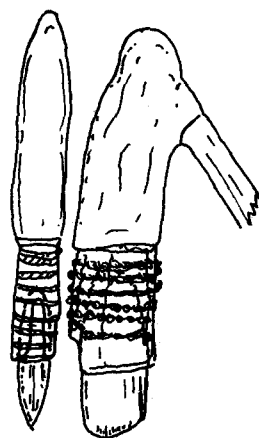
(12호 住居址 出土)



(12호 住居址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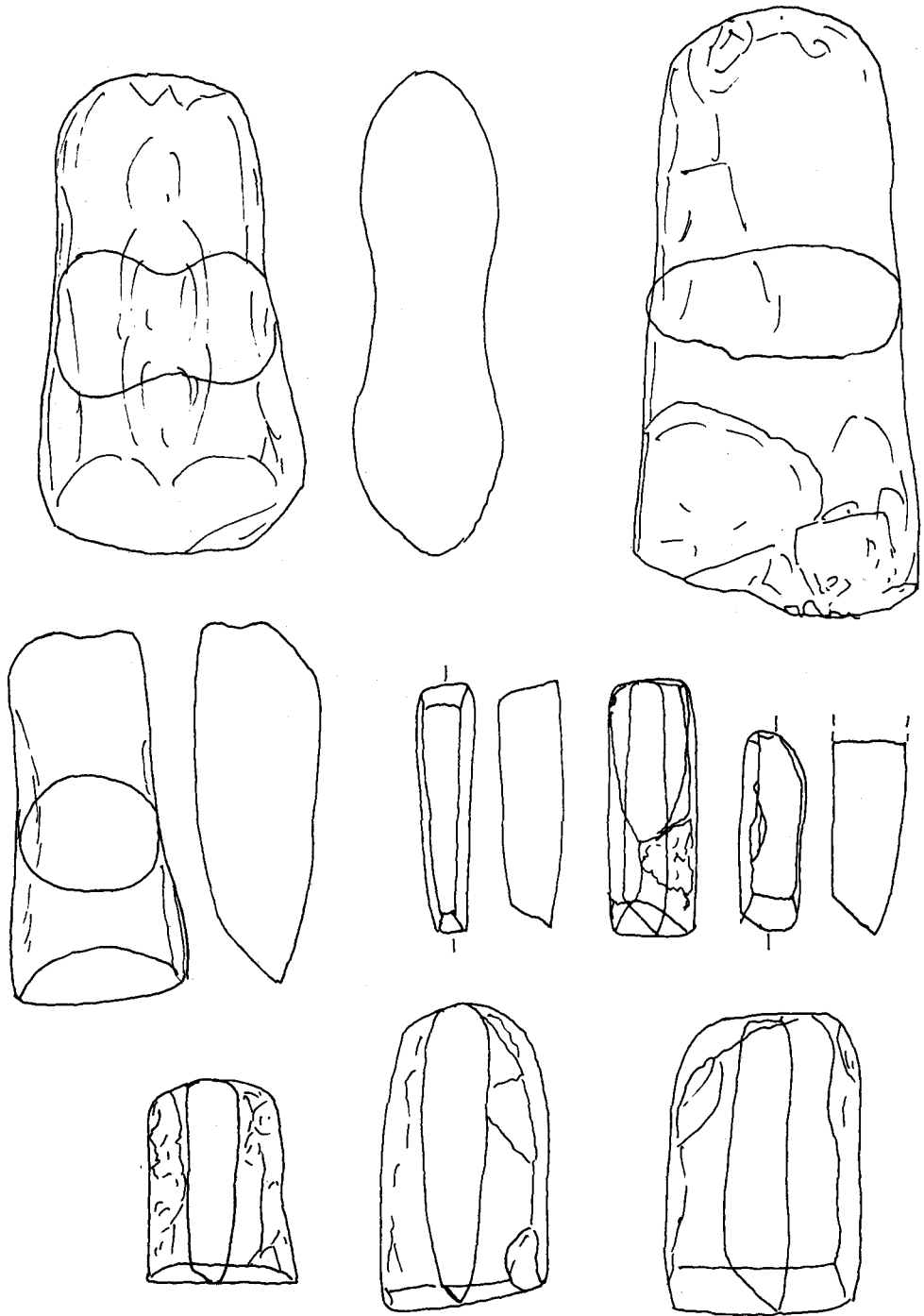


(直柄裝着法 復元 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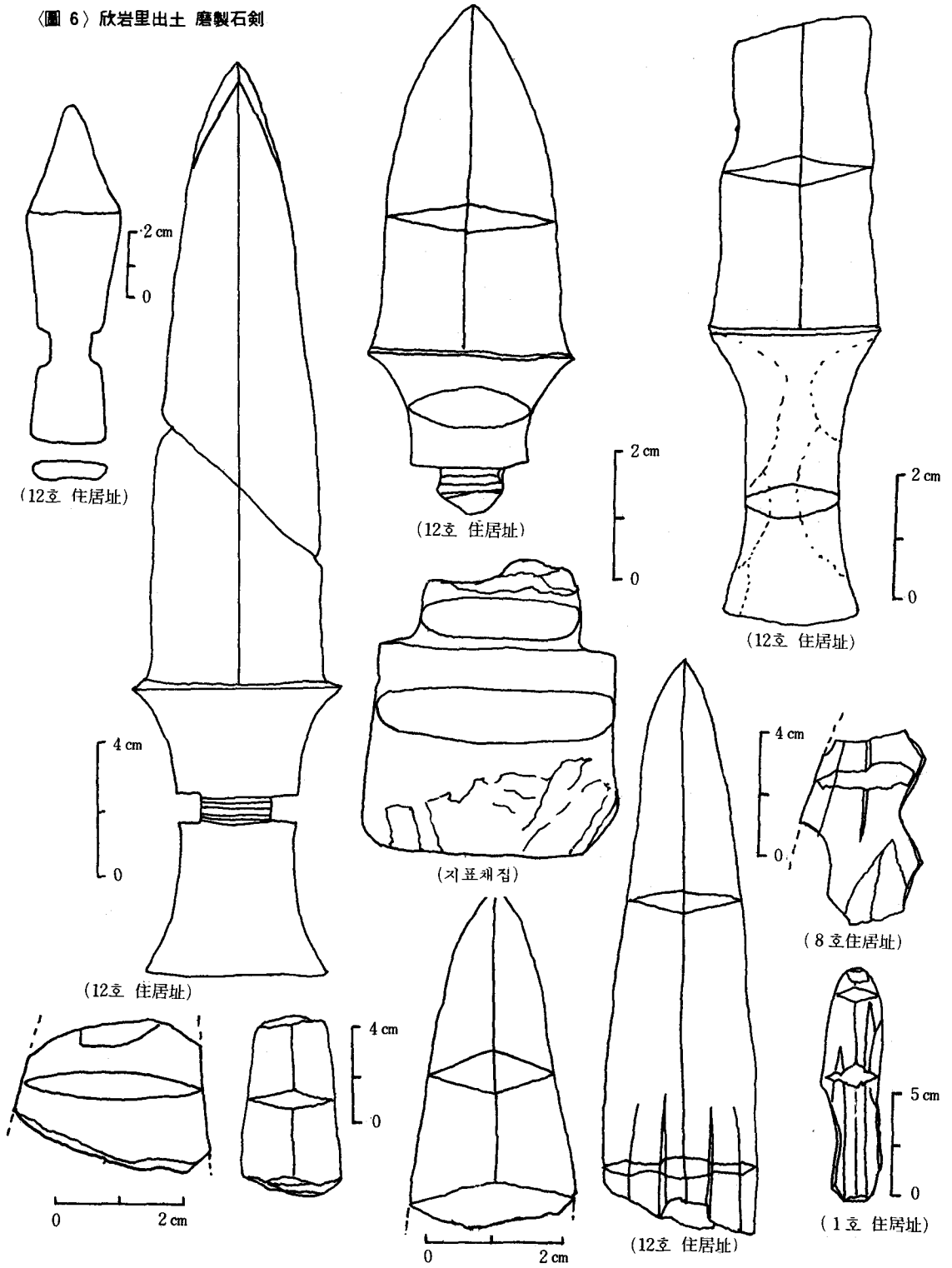
(膝柄裝着法 復元 想像圖)

〈圖 5〉松菊里出土 石斧類(姜仁求外, 「松菊里 I」, 1979, 에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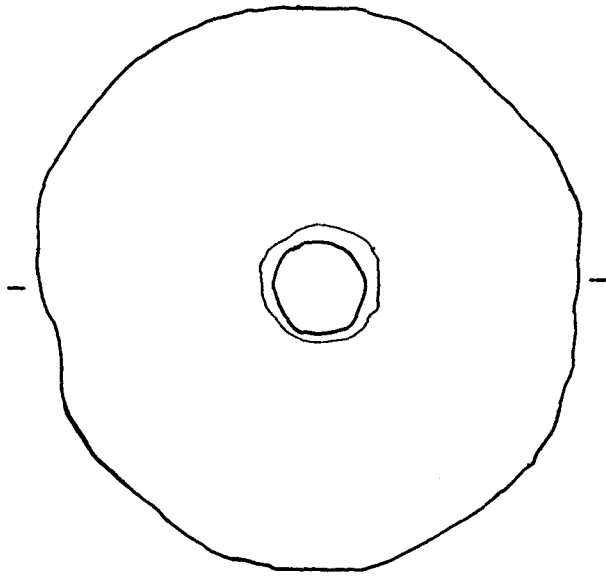


0 5 cm

〈圖 6〉 欣岩里出土 磨製石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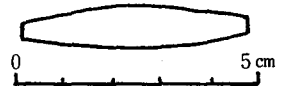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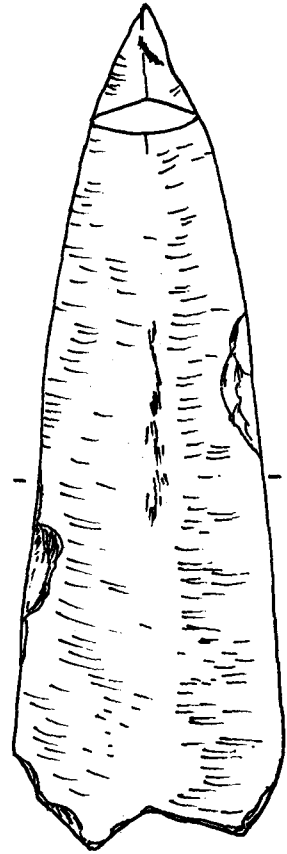


〈圖 7〉 欣岩里出土 環狀石斧 及 石槍



0 5 cm

(12호 住居址 出土 環狀 石斧)



0 5 cm

(14호 住居址 出土 石槍)